학령기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The Effect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Daily Str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daily stress. The subjects were 292 children selected from 4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parenting efficacy index, parenting stress index, and children's daily stress inventory,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Scheffé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daily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ren's grade and gender.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had negative correlation, and also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had negative correlation. Further,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daily stres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as well. It was also found that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general parenting ability,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discipline ability, father's stress of difficult child, mother's educational distress, and children's gender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daily stress.

Key words: mother and father'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children's daily stress

I. 서론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며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아동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으로 아동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접수일: 2012년 5월 2일 심사일: 2012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835-8254
e-mail: chae@incheon.ac.kr

비슷하지만, 아직 발달 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Kim & Kim 1999).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아동의 누적된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및 복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강조되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Dabow et al. 1991; Han & Yoo 1995). 일상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Carson et al. 1992)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Lee 1990). 따라서 아동의 단편적인 스트레스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려 노력해 왔다(Gamezy 1991; Shin & Kim 1996).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Doh 1996; DuBois et al. 1992). 그러나 스트레스가 환경으로 부터의 요구에 의해 유발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 규명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인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 중 가정은 인간이 가장 처음 접하는 일차적 사회

로서 인간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는 곳이다. 가정은 한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가정생활의 각종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인간의 성격형성의 기초가 형성 된다. 많은 학자들은 가정을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받아 인간의 인격형성과 성장의 기본적인 발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Choi (1991)는 아동들은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은 환경적 요인 중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정환경과 아동의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Kim(1999)은 아동이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Seo(2001)는 가족 지지가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사랑, 이해, 관심, 존중의 다양한 지지는 아동들에게 긍정적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아주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의 인적 환경 중 아동이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람이 부모이므로 부모 양육 변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가정에서의 부모 관련 변인 중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 부모의 양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양육행동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Choe 2002).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되는데(Johnston & Mash 1989; Shin 1997), 양육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un 2004).

양육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자녀양육에 적용시킨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로써,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등의 행동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사고방식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을 양육에 적용시킨다면,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부모들이 자신을 양육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양육자로서의 만족감, 양육행동,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아동을 잘 이해하고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ton & Mash 1989).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Mash와 Johnston(1983)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중 하나인 공격적인 행동은 어머니들의 자아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부모 효능감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Jeong(2002)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

보다 낮은 집단의 유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Lee(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을 이루면서 과거 자녀양육을 함께 의논, 공유할 수 있는 조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과중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과중한 역할증가로 인하여 부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양육은 부모의 대표적인 역할로서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자녀중심의 부부관계로 변화되기도 하여,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elsky 1984; Jun & Park 1998).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중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모의 역할 수행 중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 한다. 현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Han 1996; Park 1994).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욱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와 아동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Belsky(1984)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도 관계됨을 알 수 있는데 Lee(2001)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Hong(200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했다. Lee(1997), Kang(2006)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트레스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Yang(1998)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Bae(2004)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했다. Yun(2006)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표면적인 변화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책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정의 통솔자이자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의상이 자녀 출산 전부터 부부가 역할을 공유하고 동등한 부모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 인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양육에 적극 참여 하는 현대적 아버지의 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로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경제적 책

임을 지고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던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나타나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Cha 1997). 더욱이 아버지도 양육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Kim & Park 1995; Yoon 1999).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체감 형성과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등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인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 드문 편이다. Hong(200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한 미흡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Bae(2004)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만큼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자녀의 일상스트레스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2000)는 5학년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년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Lee(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상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각각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고,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 두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해 보는 일은 부모의 양육에 관련되는 변인을 이해하는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92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292명이다. 연구 대상 아동은 4학년이 94명(32.2%), 5학년이 99명(33.9%), 6학년이 99명(33.9%)이며, 남학생이 127명(43.5%), 여학생이 165명(56.5%)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이다.

1)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e와 Chung(2000)의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자녀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의 이해 및 수용,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능력’, 자녀의 지적학습을 지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학습지도능력’,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훈육능력’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9~.90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척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수정한 Shin(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 별로 .73~.86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alpha=.86$ 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Han과 Yoo(1995)이 제작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으로서는 부모의 간섭, 편애, 과잉기대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상태, 가정의 분위기,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들과로부터의 따돌림, 친구들과의 부적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친구관련 스트레스’, 성적/ 시험에 대한 불안, 과외활동의 과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의 편애/ 수업 방식,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교시설의 불편함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통학시간/ 교통체증/ 소음 및 유해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많이 받는다’의 4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81~.90 으로 나타났고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전

체신뢰도 계수는 $\alpha=.95$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0명과 그들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몇몇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과 부모에게 배포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였다. 총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 하였는데, 그중 미회수된 것, 응답이 불성실하고 부모-아동 쌍이 맞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92부의 질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차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학년, 성별에 따라서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과 5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 시험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과외활동으로 인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아동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하위변인 별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도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

Table 1. Difference in daily stress by the children's grade and gender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M	t/F	S	M	t/F	S	M	t/F	S	M	t/F	S
Grade	4th	16.07			10.72			11.61			13.52		A
	5th	16.67	.371		10.58	.934		11.69	1.638		15.30	6.577**	B
	6th	16.40			9.93			10.58			15.95		B
Gender	Male	15.66			9.67			10.45			13.80		
	Female	16.96	-2.279*		11.00	-2.664**		11.97	-2.731**		15.84	-3.627***	

Variables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	t/F	S	M	t/F	S	M	t/F	S
Grade	4th	10.61			9.82			72.37		
	5th	10.69	1.051		9.16	2.413		74.12	.404	
	6th	9.99			8.68			71.56		
Gender	Male	10.05			8.85			68.50		
	Female	10.74	-1.589		9.50	-1.560		76.04	-3.147**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other and father's parenting-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o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32**	-.277**	-.196**	-.178**	-.209**	-.205**	-.271**
Healthy parenting ability	-.228**	-.260**	-.240**	-.155**	-.187**	-.166**	-.259**
Communication ability	-.202**	-.261**	-.136*	-.167**	-.171**	-.194**	-.236**
Coaching ability of study	-.164**	-.185**	-.148*	-.130*	-.137*	-.156**	-.193**
Discipline ability	-.164**	-.244**	-.187**	-.136*	-.202**	-.208**	-.238**
Total mother's parenting efficacy	-.153**	-.212**	-.137*	-.084	-.192**	-.191**	-.200**
Fa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09**	-.182**	-.114	-.150*	-.172**	-.181**	-.209**
Healthy parenting ability	-.180**	-.214**	-.162**	-.173**	-.121*	-.144*	-.210**
Communication ability	-.280**	-.300**	-.266**	-.247**	-.248**	-.252**	-.334**
Coaching ability of study	-.101	-.107	-.051	-.120*	-.090	-.082	-.116*
Discipline ability	-.259**	-.300**	-.283**	-.283**	-.265**	-.271**	-.349*
Total father's parenting efficacy	-.257**	-.269**	-.211**	-.232**	-.221**	-.229**	-.297**

*p<.05, **p<.01

중에서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는 훈육능력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효능감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3.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other and father's parenting-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o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316**	.264**	.190**	.231**	.173**	.152**	.279**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41**	.229**	.193**	.211**	.107	.115*	.233**
Educational distress	.138*	.072	.086	.136*	.079	.013	.112
Total mother's parenting stress	.210**	.168**	.106	.130*	.092	.083	.166**
Fa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244**	.234**	.134*	.125*	.132*	.130*	.209**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 interaction	.279**	.300**	.214**	.255**	.199**	.168**	.298**
Educational distress	.094	.107	-.037	.115	.030	.022	.069
Total father's parenting stress	.309**	.319**	.187**	.240**	.192**	.170**	.297**

*p<.05, **p<.01, ***p<.001

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모두 하위변인 별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부모관련, 가정환경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은 모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4.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학년과 성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 이 .70 이상을 넘

Table 4. The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daily stress

Variables		Children's daily stress		
		B	β	t
Children	Grade	1.492	.022	.413
	Gender	.175	.156	2.906**
Mo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2.900	-.399	-4.150**
	Healthy parenting ability	1.290	.127	1.241
	Communication ability	1.382	.149	1.343
	Coaching ability of study	7.026	.059	.626
	Discipline ability	-2.500	-.111	-1.247
	Stress of difficult child	8.379	.074	.957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8.400	-.063	-.872
	Educational distress	3.913	.162	2.405*
Father	General parenting ability	-7.600	-.096	-1.089
	Healthy parenting ability	1.755	.138	1.545
	Communication ability	5.087	.006	.056
	Coaching ability of study	8.118	.059	.797
	Discipline ability	-5.003	-.287	-2.760**
	Stress of difficult child	2.381	.184	2.805**
	Stress of parent- 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4.955	.046	.566
	Educational distress	-2.502	-.082	-1.363
R ²		.282		
F		5.955**		

* $p < .05$, ** $p < .01$

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이었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동의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전반적 양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8% 정도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즉,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4개의 초등학교 4, 5, 6 학년 아동 292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292명을 연구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년에 따라서는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3)의 초등학교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Lee(2000)의 5학년과 6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과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의무에 대한 부담감과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2003), Yun(1993), Kim (200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는 사회에서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또한 여아가 성장하면서 받는 성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제약이 남아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하위변인 별로 모두 유의한 부정적 상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1997), Jeong(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의사소통과 학습지도를 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도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적절한 통제와 훈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아동이 일상스트레스를 적게 받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모두 하위변인 별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부모관련, 가정환경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Lee(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가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결과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는 Yang(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두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아버지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하위변인은 모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다는 Hong(2002), Bac(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 아버지가 자녀의 예민한 기질로 인해 양육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아동에게도 불편함으로 전달되어 아동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이었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전반적 양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면 아동을 자신감 있게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아버지가 훈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자녀의 기질을 잘 다룰 때 아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지니친 기대를 할 때 이는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아동의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훈육능력 효능감, 아버지의 자녀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성별 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을 높여주고, 아버지가 효율적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자녀의 기질에 따른 특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때,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자녀의 일상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일부의 4, 5, 6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령기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특히,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연구 대상의 폭을 넓혀 연령에 따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측정이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일상스트레스에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 Bae KY(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ly Stress of Infants and the Raising Stress of Both Job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orea.
- Bandura A(1982)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arson DK, Swanson DM, Cooney MH, Gillum BJ, Cunningham D(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 22, 273-302.
- Cha KS(1997) The Influence of Child Rearing Attitude and Verbal Control Mode of Mothers on Children's Self-esteem Reported b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e HS(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HS, Chung OB(2000)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J Child Development* 22(3), 1-15.
- Choi SY(1991) A Study on Children's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Korea.
- Coleman PK, Korraaker K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f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n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bow EF, Tisak J, Causey D, Hryshko A, Reid CT(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Doh HS(1996)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loneliness in childr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4(6), 1-12.
- DuBois DL, Felner RD, Brard S, Adan AM, Evans E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Garnezy N(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Han MH, Yoo AJ(1995) Development of daily stres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 Korean Home*

- Economics Assoc 33(4), 49-64.
- Han SY(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Poorness-of-fit of Tempera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HR(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HI(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liefs and Efficacy, and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hnston C, Mash E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un CA, Park SY(1998)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6(1), 1-11.
- Jun EY(2004) Difference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liefs and Efficacy, and Children's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OS(200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Type,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Gyeungnam, Korea.
- Kim JY, Kim JS(1999) A study on stress in school-aged and their coping behavior.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0(1), 252-261.
- Kim KU(2002)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Factors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won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KU, Park SY(1995)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MY(1999)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upon Children's Coping Behavior with Daily Stres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azarus RS, Folkmans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e CI(2001) A Study on the Stress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Lee HJ(1997)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Maternal Stress and Stress Behaviors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B(1990) The Influences on the Child Abuse by the Stress Related to the Parents' Life Event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aegu University, Kyeongsan, Korea.
- Lee KS(2000)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on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S(2003)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Causes and Stress Coping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Mash EJ,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Park HM(1994)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YM(2001)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ocial Supports, and Coping Behavior with Str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Korea.
- Shin EY, Kim KY(1996) A Study on the Stressor, Frequency of the Stressor, Level of the Stress Perceived by Childr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4(4), 33-48.
- Shin SJ(1997) Effect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HY(1998) Children's Stress by Ecological Approach. Bring up competent child, Samsung Foundation, 119-144.
- Yoon, SY(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RATHE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un HJ(1993) A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un YH(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and the Daily Stress and Problems Behavior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